

투자자를 위한 자산운용 보고서

1 ()

운영기간 2017 08 28 - 2017 11 27

Professionalism

Distinctiveness

Management

Competitiveness

Transparency

가 []
() []
[] HTS ()
1



1.

2.

3.

4.

5.

6.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등급	5등급(낮은위험)
--------------	--------------------	-------------	-----------

펀드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A0415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종류C-s		A0447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종류S		AQ341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 증권펀드(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4.02.28
운용기간	2017.08.28 - 2017.11.27	존속기간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	플러스자산운용	판매회사	하나금융투자, 펀드온라인코리아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농협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상품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 미만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만 롱숏전략(주식매수+주식차입매도 및 주가지수선물매도) 및 기타 알파전략의 병행으로 주식 순매수 비중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20% 범위 내에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주) 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dis.kofia.or.kr>],
운용사 홈페이지 [<http://www.plusasset.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명칭	항목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	자산총액	10,298	8,324	-19.17
	부채총액	18	6	-67.89
	순자산총액	10,279	8,318	-19.08
	기준가격	1,020.53	1,033.53	1.27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 종류C-s	기준가격	1,018.38	1,030.24	1.16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 종류S	기준가격	1,210.91	1,259.49	4.01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 운용경과

7월 말 북핵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며 조정기에 진입한 국내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의 3분기 감익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9월 초까지 강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북핵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반등을 시작하였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1월 들어 미국 세제 개편안의 상원 통과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이 점화되며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하락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8월 IT, 철강, 정유, 화학 업종이 시장 대비 상회하였고 자동차, 조선, 건설, 은행, 보험 업종이 시장 대비 하회하였습니다. 9월은 IT, 자동차, 정유, 제약 등의 성과가 좋았고 건설, 화학, 철강 등의 성과는 저조하였습니다. 10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 관련 주식들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11월 들어지면서 자동차, 음식료, 유통, 제약 및 바이오, 코스닥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고 IT, 건설, 증권, 보험, 화학 등의 업종은 하락하였습니다.

종목별 대응은 매입보유전략보다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지수 등락에 따라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 포지션을 0~20% 내에서 유동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지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1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12월 금리인상을 반영하여 해당 기간 채권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국고채 3년 기준으로 2.145%로 0.385% 상승하여 시장은 이미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채권부문은 통안채를 보유하여 보유수익을 확보하고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미국 세제 개편안의 상원 통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국내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도체 업황의 고점논란이 있지만 이는 기우라고 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예상되는 점도 삼성전자 주가 및 국내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10월 31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각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대감은 다른 나라 대비 배당투자 매력이 낮다는 한국 시장의 단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와 미국, 유럽연합 등의 정책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이벤트 발생 시점에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하여 마켓타이밍 전략의 노출 포지션 비중을 -5~20% 내에서 유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종목은 중·단기적으로 수급이 좋고 기초여건이 양호한 종목 위주로 매매하여 수익을 쌓아가는 절대수익 추구형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11월 3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였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12월 13일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1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하여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1차례 정도이며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권부문은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펀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 기간수익률

(단위: %)

펀드명칭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2개월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17.08.28 ~ 17.11.27	17.05.28 ~ 17.11.27	17.02.28 ~ 17.11.27	16.11.28 ~ 17.11.27	15.11.28 ~ 17.11.27	14.11.28 ~ 17.11.27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 자산탁1호(채권혼합)	1.27	1.76	3.11	4.34	5.03	7.14	-
(비교지수대비 성과)	(0.78)	(0.82)	(0.52)	(0.43)	(0.04)	(-0.37)	-
비 교 지 수	0.49	0.94	2.59	3.91	4.99	7.51	-

종류(Class)별 현황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 자산탁1호(채권혼합) C-s (비교지수대비 성과)	1.16 (0.67)	1.54 (0.60)	2.78 (0.19)	3.89 (-0.02)	4.13 (-0.86)	-	-
비 교 지 수	0.49	0.94	2.59	3.91	4.99	-	-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 자산탁1호(채권혼합) S (비교지수대비 성과)	4.01 (3.52)	24.05 (23.11)	25.65 (23.06)	27.15 (23.24)	28.00 (23.01)	30.67 (23.16)	-
비 교 지 수	0.49	0.94	2.59	3.91	4.99	7.51	-

※ 비교지수 : (0.1 * [KOSPI]) + (0.9 * [KIS국고채 01-02Y])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멀티롱숏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C-s 미운용기간 2015.04.28 ~ 2015.04.29

▶ 손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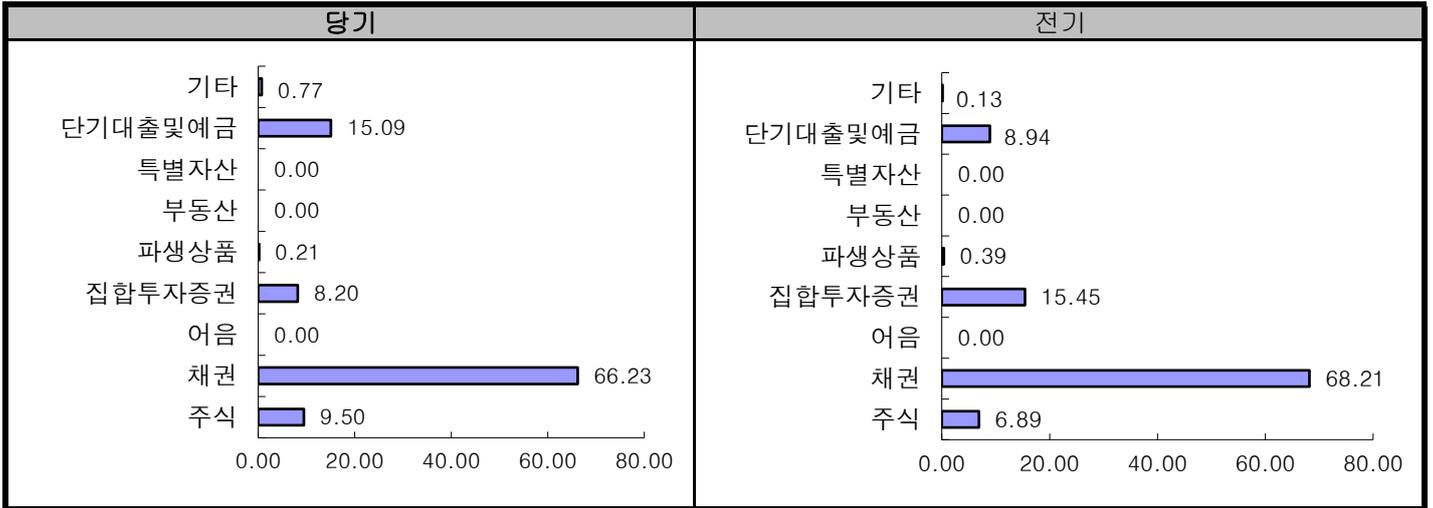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16	19	-	17	-6	-	-	-	-	3	1	49
당기	74	16	-	89	-53	-	-	-	-	2	0	129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791 (9.50)	5,513 (66.23)	-	682 (8.20)	17 (0.21)	-	-	-	-	1,256 (15.09)	64 (0.77)	8,324 (100.00)
합계	791 (9.50)	5,513 (66.23)	-	682 (8.20)	17 (0.21)	-	-	-	-	1,256 (15.09)	64 (0.77)	8,324 (100.00)

* () : 구성 비중

▶ 주요자산보유현황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식 - Long(매수)

(단위: 주, 백만원, %)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삼성전자	63	166	1.99	-
SK하이닉스	690	57	0.68	-
현대차	226	36	0.43	-
NAVER	42	33	0.40	-
엘지화학	72	30	0.36	-
KT&G	225	28	0.33	-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비고
통안0145-1806-02	5,500	5,513	2016.06.02	2018.06.02	-	RF	66.23	66.23

▶ **집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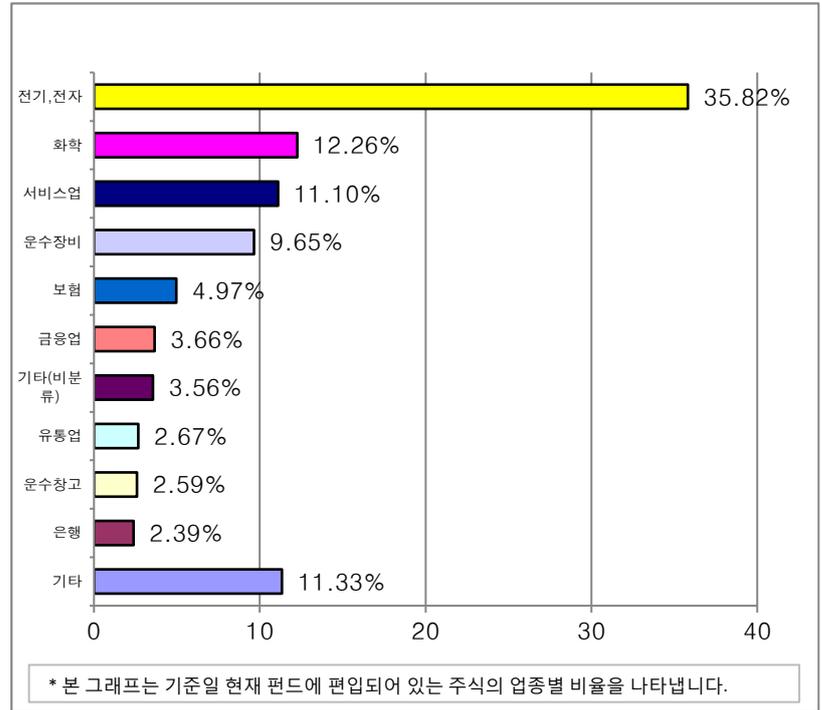
(단위: 좌수, 백만원, %)

종 목 명	종류	자산운용회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비중	비고
KODEX 200	상장지수펀드		266	360	4.32	-
KODEX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331	323	3.87	-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Long(매수)**

(단위: 백만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 전자	283	35.82
2	화학	97	12.26
3	서비스업	88	11.10
4	운수장비	76	9.65
5	보험	39	4.97
6	금융업	29	3.66
7	기타(비분류)	28	3.56
8	유통업	21	2.67
9	운수창고	21	2.59
10	은행	19	2.39
11	기타	90	11.33
	합 계	791	100.00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주) 업종기준은 코스콤 기준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Short(매도)**

※ 해당사항 없음

▶ **업종별(해외주식) 투자비중**

※ 해당사항 없음

▶ **국가별 투자비중**

발행(상장)국가별 투자비중

* 일부 해외종목의 경우 거래소 상장국가와 실제 발행국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억원)

성명	운용개시일	직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협회등록번호
			펀드 개수	운용 규모	개수	운용 규모		
이관홍	2014.02.28	운용전문인력	6	24,208	-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993.08~1999.05 대한투자신탁 채권운용 1999.06~2000.06 중앙종합금융수석펀드매니저 2000.07~2003.07 새마을금고연합회 채권운용 2004.01~2005.11 굿앤리치 자산운용 2006.01~ 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2109000403
박승철	2014.02.28	책임운용전문인력	92	2,743	-	-	고려대학교/동 대학원 수학과 졸업 2000.03~2007.06 현대증권 파생상품운용팀 2007.06~2007.09 마이어자산운용 실물자산팀 2007.09~2009.09 기은SG자산운용 SI운용팀 2010.02~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2109000679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운용전문인력
2014.02.28 - 2017.11.27	박승철
2014.02.28 - 2017.11.27	이관홍

(주 1) 2017.11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현황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펀드 명칭	구 분	전 기		당 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 자산탁1호(채권혼합)	자산운용회사		9.04	0.09	8.57	0.09
	판매회사	멀티롱숏 증권1호(채권혼합)C-s	1.29	0.01	1.22	0.01
		멀티롱숏 증권1호(채권혼합)S	0.00	0.06	0.00	0.0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39	0.00	0.37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39	0.00	0.37	0.00
	보수 합계		11.11	0.17	10.53	0.16
	기타비용**		0.17	0.00	0.16	0.00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3.07	0.03	2.39	0.03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28	0.00	0.31	0.00
		합계	3.35	0.03	2.70	0.03
	증권거래세		2.11	0.02	2.33	0.02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환산, %)

펀드 명칭	구 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 수수료비율(B)	합계(A+B)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 수수료비율(B)	합계(A+B)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 자산탁1호(채권혼합)	전기	0.01	0.13	0.14	0.01	0.13	0.14
	당기	0.01	0.11	0.12	0.01	0.11	0.12
종류(class)별 현황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 자산탁1호(채권혼합) C-s	전기	0.43	-	0.43	0.44	0.13	0.57
	당기	0.43	-	0.43	0.44	0.11	0.55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 자산탁1호(채권혼합) S	전기	0.59	-	0.59	0.60	0.18	0.77
	당기	0.42	-	0.42	0.42	0.09	0.50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주, 백만원, %)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주1)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해당기간	연환산
16,397	773	14,112	778	102.22	405.56

주1)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2016.11.28 ~ 2017.02.27	2017.02.28 ~ 2017.05.27	2017.05.28 ~ 2017.08.27
100.94	73.95	102.76

주)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